

중학생의 여가활동과 흡연·음주와의 관계

김나영¹ · 최연희²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¹,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Smoking/Drin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Na-Young¹ · Choi, Yeon-Hee²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smoking/drin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298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2nd to 30th of September, 200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frequency, χ^2 test,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The study used the Adolescent Leisure Time Activities Scale (ALTAS) developed by Yin et al. (1999) for types of leisure activities and the 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 developed by Beard & Ragheb (1980). **Results:** First, smoking/drinking caus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ization with friends', and drinking also caus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ort activities'. Second, leisur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urrently drinking' ($r=.126, p<.05$). Third,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leisure satisfaction were grades, school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verage daily leisure time, participation in leisure health program, and current drinking. These variables explained 23.4% of leisure satisfaction. **Conclusion:** School nurses should develop and run programs, which promote healthy way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wrong ways such as drinking to get leisure satisfaction. Also family, school and community should be cooperative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Key Words: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Smoking, drink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중·고등학교의 주 5일 수업제가 2005년 월1회 실시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격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면 실시를 목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벗

어나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춘기의 시작인 중학생 시기는 아직 체격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고등학생에 비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Shin, 2008). 이 시기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서 신체와 정신, 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

주요어: 여가활동, 여가 만족도, 흡연, 음주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i, Yeon-Hee,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dong, Jung-gu, Daegu 700-421, Korea. Tel: 82-53-420-4926, Fax: 82-53-421-2758, E-mail: yeonheechoi@naver.com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나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3월 1일 / 수정일 2011년 5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30일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여가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적활동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Lee, 1995). 이러한 중학생들에게 있어 여가는 생애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여가 시간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 TV시청 등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06; Kim, 2010). 또한 학업성적에 대한 가정, 사회의 관심과 고등학교의 진학의 부담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0; Lee, 2009).

특히 중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시점이기 때문에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문제 행동을 선택하기도 하고, 성인세계에 대한 동경과 영웅을 숭배하고 동일시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대중매체 속 연예인의 건전하지 못한 모습을 모방하는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hin, 2008). 또한 Kim (200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여가활동이 고등학생보다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회와 불건전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회와 불건전 여가활동에서 흡연·음주가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여가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Hwang (2000)과 Park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은 주로 여가시간에 많이 일어나며 여가시간이 많은 학생이 적은 학생보다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Kim (2004)의 연구에서는 흡연·음주를 포함한 지위 비행이 성인감독자가 없는 비구조화된 활동에서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기에 앞으로 주5일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흡연과 음주이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KCDC], 2010). Kim과 Kim (2002)의 연구에서는 흡연·음주 및 약물남용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흡연은 비행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른 약물 사용의 gate way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의 흡연은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며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2010). 청소년

기의 음주는 뇌세포와 성장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학습 장애나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청소년에게서 우울증상, 충동장애, 품행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등이 많이 발생한다(Clark, Lesnick, & Hegedus, 1997).

KCDC (2010)가 조사한 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 따르면 중학생의 매일 흡연율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학생의 음주 경험률이 43.8%,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이 21.7%로 나타나 중학생 음주의 보편화, 저연령화를 시사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길수록 흡연·음주를 포함한 지위 비행이 높아지고(Park, 2004), 일부 청소년들은 건전하지 못한 여가활동으로 흡연·음주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과 흡연·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 여가활동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부터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가활동 실태조사(Hwang, 2005; Kim, 200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음주와 여가활동 관련성 연구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연구(Huh, 2009; Hwang, 2000; Kim, 2007; Kim 2006)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여가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인 여가만족과 흡연·음주와의 관련성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가활동의 결과로써 형성되고 얻게 되는 긍정적인 지각 또는 감정을 여가만족이라 하는데(Beard & Ragheb 1980), Kim (1992)과 Lee (1995)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과 비행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만 이는 약 20년 전의 연구로 새롭게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여가활동과 함께 여가만족과 흡연·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체육교육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레크리에이션, 관광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건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보건교사가 진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개인의 모든 영역에서의 안녕상태, 즉 건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호학에서도 이러한 여가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여가와 관련한 연구가 간호학 분야에서는 미흡한 상태였으며, 주로 노인을 대상(Byun, 2006; Park, 2009)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대표적인 문제점인

흡연·음주와 여가활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주5일제 전면 실시와 더불어 보건교사가 여가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흡연·음주 예방과 금연·금주 프로그램 및 여가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여가활동과 흡연·음주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 여가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학생의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활동의 유형 차이를 분석한다.
- 중학생의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중학생의 흡연·음주와 여가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 중학생의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자가 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연구대상자 선정을 일개 시에 있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여가활동과 흡연·음주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수 크기는 상관성 연구에서 연구도구의 1개 문항 당 5~10배의 표본 수를 요구하는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총 문항 수 40개인 본 연구의 적정 표본 수는 200~

400명이었다.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은 확률 표집법으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학년의 각 반을 선정하였다. 400명을 설문 면접 조사하였으나 설문지 회수율 74.5%로 총 29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학생들에게 배부할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흡연·음주 관련 특성 2문항, 여가 관련특성 3문항, 여가활동유형에 관련된 문항 24문항, 여가만족도 6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용돈, 성적,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흡연·음주 관련 특성 문항은 현재 흡연, 현재 음주를 조사하였다. 현재 흡연은 지난 한 달부터 현재까지의 흡연 여부를 의미하며 현재 음주는 지난 한 달부터 현재까지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경험을 의미한다. 여가 관련 특성 문항은 평균 일일 여가시간, 여가활동의 필요성 인식, 여가시간에 건강 프로그램 참여의도를 조사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은 Yin, Katims와 Zapata (1999)가 개발한 '청소년 여가활동 척도(ALTAS, Adolescent Leisure Time Activities Scale)'를 Kim (2002)이 번역, 검토하여 완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여가활동 척도는 친구와 사교활동, 자기주도 활동, 스포츠 활동, 조직화 활동 및 단순 휴식 활동으로 나누어졌으며 총 24문항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로 조사하였으며, '전혀 안함'을 1점으로 하고 '매우 자주'에 5점을 부여하여 통계분석에 적용하였다. 여가활동의 유형구분은 각 유형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유형별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영역을 해당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각각의 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45 \sim .7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각각의 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sim .89$ 이었다.

청소년의 여가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eard와 Ragheb (1980)에 의해 개발된 여가만족도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Kim (2006)이 번역, 검토하여 완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Kim, 200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일개 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승낙을 받고 연구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 사항,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리 제작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자료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법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작성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과 여가 만족도의 차이는 χ^2 test, t-test 및 ANOVA와 Duncan 다중비교 검증법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인 현재 흡연과 현재 음주는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으며,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는 0, 하지 않는 경우는 1, 현재 음주를 하는 경우는 0, 하지 않는 경우는 1로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Table 1을 통해 살펴보면, 1학년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고 2학년 31.5%, 3학년 20.2% 순이었다.

현재 학교생활 만족도는 48.7%가 '만족'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통' 31.5%, '불만족' 19.8% 순이었다.

용돈은 60.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통' 31.9%, '충분함' 7.7% 순이었다.

성적은 중위권이 43.0%로 가장 많았으며, 하위권 31.8%, 상위권 25.2% 순이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다'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23.5%, '건강하다' 10.4% 순이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Grade | 1st | 144 (48.3) |
| | 2nd | 94 (31.5) |
| | 3rd | 60 (20.2) |
| School life satisfaction | Poor | 59 (19.8) |
| | Moderate | 94 (31.5) |
| | Good | 145 (48.7) |
| Parental-allowance | Lack | 180 (60.4) |
| | Enough | 95 (31.9) |
| | Abundant | 23 (7.7) |
| Examination results | Top | 75 (25.2) |
| | Middle | 128 (43.0) |
| | Bottom | 95 (31.8) |
| Subjective health status | Good | 31 (10.4) |
| | Moderate | 70 (23.5) |
| | Poor | 197 (66.1) |
| Total | | 298 (100) |

2.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Table 2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흡연 유무, 현재 음주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흡연 유무($\chi^2=37.37, p<.01$)의 경우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학생보다 '친구사교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고, 흡연하지 않는 학생은 '단순휴식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음주 유무($\chi^2=67.49, p<.001$)에서는 현재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친구사교형', '스포츠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현재 음주 경험이 없는 학생은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단순휴식형'과 '조직화형'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3. 일반적 특성 및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 만족도의 차이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 만족도

Table 2. The Differences of Types of Leisure Activity based on Smoking/Drinking

(N=298)

| Variables | Categories | Socialization with friends | Self-directed activities | Sports activities | Organized activities | Activities at home | χ^2 (p) |
|--------------------|------------|----------------------------|--------------------------|-------------------|----------------------|--------------------|-----------------------|
| | | n (%) | n (%) | n (%) | n (%) | n (%) | |
| Currently smoking | Yes | 14 (53.8) | 3 (11.5) | 3 (11.5) | 4 (15.5) | 2 (7.7) | 37.37 (.001) |
| | No | 48 (17.6) | 34 (12.5) | 42 (15.4) | 41 (15.1) | 107 (39.4) | |
| Currently drinking | Yes | 32 (32.0) | 11 (11.0) | 18 (18.0) | 5 (5.0) | 34 (34.0) | 67.49 ($< .001$) |
| | No | 30 (15.2) | 26 (13.1) | 27 (13.6) | 40 (20.2) | 75 (37.9) | |

의 차이를 Table 3과 같이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여가 만족도에서 학년($F=27.39, p<.001$), 학교생활 만족도($F=5.65, p<.001$), 주관적 건강상태($F=7.52, p<.001$), 평균 일일 여가시간($F=26.27, p<.01$), 여가시간에 건강 프로그램 참여의도($t=3.33, p<.01$) 및 현재 음주상태($t=2.03,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여가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은 3학년에 비해 여가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보다 여가만족도가 더 높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학교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보다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불건강, 보통으로 지각하는 학생보다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일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서는 '3시간 미만'보다 '3~5시간'이, '3~5시간'보다는 '5시간 이상'인 학생이 여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건강 프로그램 참여 의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참여의도가 있는 학생이 참여의도가 없는 학생보다 여가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음주상태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서는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이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보다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가 만족도와 흡연·음주의 상관관계

중학생의 여가 만족도와 흡연·음주와의 상관관계를 Table 4를 통해 살펴보면, 중학생의 여가 만족도는 현재 음주상태($r=.126, p<.05$)와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학생의 현재 음주상태와 현재 흡연상태($r=.358, p<$

$.001$)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5. 여가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중학생의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Table 5와 같이 일련의 독립변수들의 투입순서를 통제하는 분석방법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12~.69로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2.90범위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 한계(tolerance)가 .75~.83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0~2.52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다.

모델 1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여가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난 특성을 투입하였다. 학년($\beta=-.159, p<.001$)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beta=.171, p<.001$)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beta=.103, p<.001$)가 좋을수록, 평균 일일 여가시간($\beta=.108, p<.01$)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에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beta=.096, p<.01$)하고자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18.3%이었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현재 흡연과 현재 음주 유무를 추가 투입하였으며, 유의미한 요인으로 현재 음주 상태($\beta=-.094, p<.05$)가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현

Table 3. The Differ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Drinking (N=298)

| Variables | Categories | M±SD | t or F | p | Duncan test |
|---|--------------|-------------------------|--------|--------|-------------|
| Grade | 1st | 12.7±3.77 ^{ab} | 27.39 | < .001 | a < b |
| | 2nd | 12.2±3.28 ^b | | | |
| | 3rd | 10.4±3.22 ^a | | | |
| School life satisfaction | Poor | 10.5±3.83 ^a | 5.65 | < .001 | a < b < c |
| | Moderate | 11.6±3.37 ^b | | | |
| | Good | 12.8±3.42 ^c | | | |
| Parental-allowance | Lack | 11.9±3.55 | 0.73 | .575 | |
| | Enough | 11.8±3.53 | | | |
| | Abundant | 12.1±2.69 | | | |
| The exam results | Bottom | 11.6±4.04 | 0.47 | .756 | |
| | Middle | 11.8±3.56 | | | |
| | Top | 11.9±3.82 | | | |
| Subjective health status | Poor | 10.6±3.27 ^a | 7.52 | < .001 | a < b |
| | Moderate | 11.2±3.32 ^a | | | |
| | Good | 12.9±3.85 ^b | | | |
| Average daily leisure time | < 3 hours | 14.6±3.79 ^a | 26.27 | .003 | a < b < c |
| | 3~ < 5 hours | 15.9±3.51 ^b | | | |
| | ≥ 5 hours | 16.6±3.70 ^c | | | |
| Participation in leisure health program | Yes | 15.4±3.71 | 3.33 | .001 | |
| | No | 13.6±3.72 | | | |
| Currently smoking | Yes | 12.5±3.70 | 1.37 | .170 | |
| | No | 11.8±3.56 | | | |
| Currently drinking | Yes | 12.7±3.84 | 2.03 | .037 | |
| | No | 11.7±3.46 | | | |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Smoking/ Drinking

| Variables | Currently smoking | Currently drinking |
|----------------------|-------------------|--------------------|
| Currently smoking | | |
| Currently drinking | .358*** | |
| Leisure satisfaction | .051 | .126* |

* $p < .05$, *** $p < .001$.

재 음주를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3.4%로 모델 1에 비해 5.1%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앞으로 주 5일제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될 중학생들의 여가활동을 건전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흡연·음주와 여가활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차이의 분석 결과 흡연·음주 모두 '친구사교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친구와 사교활동 참여가 높은 집단이 흡연·음주 등의 문제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Kim (2002)의 연구에서는 '친구와 사교활동'에 많이 참여한 집단의 흡연 경험이 다른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화된 활동'에 많이 참여한 집단의 흡연 경험은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Kim (2006)의 연구에서도 여가참여 유형 중 '스포츠활동'이나 '사교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취미·교양활동'과 '관람·감상활동'에 참여한 이들보다 비행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Park (2004)의 연구에서도 사교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흡연·음주를 포

Table 5. Factors Affecting Leisure Satisfaction

| | Model 1 | | | | Model 2 | | | |
|---|---------|---------|-------|---|---------|---------|-------|--------|
| | B | β | t | p | B | β | t | p |
| (Constant) | 15.642 | | 19.52 | < .001 | 17.313 | | 13.79 | < .001 |
| Grade | -0.744 | -.159 | -4.61 | < .001 | -0.763 | -.167 | -4.50 | < .001 |
| School life satisfaction | 0.671 | .171 | 4.87 | < .001 | 0.727 | .189 | 4.99 | < .001 |
| Subjective health status | 0.425 | .103 | 2.94 | < .001 | 0.434 | .108 | 2.85 | .004 |
| Average daily leisure time | 0.415 | .108 | 3.15 | .002 | 0.445 | .116 | 3.14 | .005 |
| Participation in leisure health program | 0.725 | .096 | 2.81 | .005 | 0.822 | .112 | 3.02 | .003 |
| Currently smoking | | | | | -0.587 | -.045 | -1.25 | .213 |
| Currently drinking | | | | | -0.446 | -.094 | -2.51 | .012 |
| Adj. R ² =.183, F=17.305, p<.001 | | | | Adj. R ² =.234, F=13.244, p<.001 | | | | |

Dummy variable: grade (0=1st, 1=2st, 2=3st), school life satisfaction (0=poor, 1=moderate, 2=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0=poor, 1=moderate, 2=good), average daily leisure time (0=3 hours ↓, 1=3-5 hours, 2=5 hours ↑), participation in leisure health program (0=no, 1=yes), currently smoking (0=yes, 1=no), currently drinking (0=yes, 1=no).

함한 지위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Shin (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여가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와의 사교활동이 이 시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친구와의 사교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제한하기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친구와 사교활동이 흡연·음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또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흡연·음주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한 강의식의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또래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음주는 ‘스포츠 활동’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2002)의 연구에서도 흡연·음주 모두 ‘스포츠 활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Huh (2009)의 연구에서도 스포츠는 음주 비행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는 청소년은 음주 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활동’의 경우 청소년들이 혼자 운동을 즐기기도 하는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 문화와 집단주의가 다른 활동들에 비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주5일제 확

대 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청소년들의 친구와 사교활동, 스포츠 활동 시간은 더욱 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친구와 사교활동, 스포츠 활동이 흡연·음주와 관련 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포츠 활동이 운동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 이후에 이어지는 사교활동으로 인해 음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모범적인 사교 문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적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연구(Yoon, Jung, Yoon, & Roh, 2009)와 스포츠 활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일탈행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Kim, 2010)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스포츠 활동이 음주행위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스포츠 활동이 비행을 예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와 흡연·음주와의 관계가 명확해지기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음주 특성 중 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 학년에 있어서 Hwang (2005), Lee (2009), Kim (2004)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여가 생활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는데,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Kim (2007)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부담으로 인해 여가만족 및 학교만족도가 같이 낮아졌으며, 여가만족과 학교생활만족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Cho (2005)의 연구에서는 여가 만족도에서 특히 건강상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건강한 편과 양호한 편에서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허약한 편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Lee (2009)의 연구에서도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중학생의 여가만족이 높게 나타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가만족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건강과 건강행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결과이며 앞으로 전면 주5일제 수업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 및 도입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여가시간에 건강 프로그램 참여 의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참여의도가 없는 학생보다 여가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ho (2004)의 연구에서는 여가동기가 여가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무동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이는 여가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학생은 여가활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며 이것이 여가 만족도로 이어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여가와 관련한 프로그램 실시 전에 여가활동에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유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2010)의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제의 실시로 여가시간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여가시간 증가는 여가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여가 시간의 증가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많아지므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청소년의 여가만족도를 높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만족도와 흡연·음주와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학생의 여가 만족도는 현재 음주상태와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여가만족과 음주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흡연·음주가 포함되어 있는 지위비행과 여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Kim (1992)의 연구에서는 여가 만족도와 흡연·음주와

관련 있는 지위비행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Lee (1995)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도 중 사회적 만족도가 지위비행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6)의 연구에서는 음주가 공격적 비행에 포함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는데, 비행과 여가만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만족, 사교적 만족, 신체적 만족 부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Ji (2000)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여가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비행 청소년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가만족을 얻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음주를 할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가시간에 술을 마시는 중학생들이 건강에 유해한 술을 여가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gnew (1990)는 비행의 동기가 쾌락과 즐거움의 추구에 있으므로 건전한 여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비행을 통하여 몰입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Csikszentmihalyi (1975)에 의하면 몰입경험이 여가만족을 가져다주게 되며 결국 여가에 참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Zuckerman (1979)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누구나 신기하여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사회적,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극을 추구하는 동기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행동으로 대치가능한 동기라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신기한 자극의 경험을 통해 여가만족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건강한 행동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의 흡연·음주와 관련된 보건 교육의 절실함이 요구되고 있으나 Lee와 Huh (2010)가 보고한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보건교사 배치율은 65% 미만 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별,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제9조에서 학교의 장은 음주와 흡연의 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운영되는 중·고등학교 보건은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되어 있어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가르쳐지지 않는 과목으로만 있을 뿐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과목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보건과목 선택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건과목 채택률이 중학교 18.6%, 고등학교 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타 지역도 10% 안팎으로 조사되었다(Lee & Huh, 2010). 보건교과를 채택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만 실시하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청소년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수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소외되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의 완전 주5일제가 실시되었을 때 중학생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여가 건강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편성하여 보건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면 주5일제가 실시되었을 때 늘어난 여가시간을 건강하게 잘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보건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음주와 여가활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일개 시에 소재한 중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흡연·음주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분석에서는 흡연·음주 모두 '친구사교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음주에서는 '스포츠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가 만족도와 흡연·음주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현재 음주상태와 여가 만족도가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학생의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음주를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건교사는 건강에 유해한 음주행위를 통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가만족을 얻고 있는 중학생들의 여가활동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 이러한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

의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스포츠 활동 및 친구와 사교활동의 여가활동이 오히려 흡연·음주를 증가시키며 중학생들이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가만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는 여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이고 발전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파괴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5일제 확대 실시에 앞서 학생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고취와 현재의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보건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일반적 특성, 여가 관련 특성 및 흡연·음주 변수로 한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영향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가활동 연구에 있어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청소년들이 흡연·음주와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 의식,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면접법, 참여관찰법 등 질적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gnew, R. (1990). The origins of delinquent events: An examination of offender accou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3), 267-294.
- Beard, J. B.,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0-30.
- Byun, Y. S. (2006). The level of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in the elderly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2), 128-135.
- Cho, A. M. (2004). The effect of adolescents' free time motiv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and well-being. *Studies on Korean Youth*, 15(2), 333-353.
- Cho, M. Y. (2005). *Adolescents' leisure patterns and level of understanding of leisure by demographic featur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 Clark, D. B., Lesnick, L. & Hegedus, A. M. (1997). Traumas and other adverse life events in adolescents with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Journal-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12.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Huh, J. (2009).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uvenile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Dongguk University, Seoul.
- Hwang, I. J. (2005). *A study on leisure activiti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case of Changw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Hwang, J. A. (2000). *Study on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to the juvenile delinqu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Ji, S. J. (2000). *The influences of peer relationship and leisure activities juvenile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B. C.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problematic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Kim, C. S. (2004).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teenagers' leisure activity of lifelong education dimension: Focusing on Seoul (Nowon-gu) and North region of Gyeonggi*.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ocheon.
- Kim, G. S. (2006). *Between adolescent leisur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d delinqu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 Kim, H. S., & Kim, H. S. (2002). The influence of alcohol drinking and substance abuse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3), 472-485.
- Kim, J. J. (2002). An analysis on relevance between adolescent's leisure activities type an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Adolescence Behavior Science*, 7, 141-157.
- Kim, S.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2(1), 23-43.
- Kim, S. T. (2010). Influence of leisure time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5-day week school system on the changes of stress of studies,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Physical Education*, 15(1), 55-72.
- Kim, Y. H.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leisure participation on school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Anyang.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0, November 2). The 5th (2009) annual report of adolescent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statistics. Retrieved March 26, 2011, from http://yhs.cdc.go.kr/result/data_view.asp?seq=5&page=1
- Lee, H. Y. (2009). *The effects of youth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leisure time: Centered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Lee, M. W., & Huh, J. H. (2010).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adolescents health promotion policy (91)*.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 Lee, S. H.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lifestyle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4, 161-182.
-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0, April 15). *Age at smoking initiation*. Retrieved March 20, 2011, from http://progressreport.cancer.gov/doc_detail.asp?pid=1&did=2009&chid=91&coid=903&mid=
- Park, H. K. (2009). A study on leisure activities, leisur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12(2), 112-119.
- Park, K. Y. (2004).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delinquency of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Shin, J. B. (2008). *Relationship of leisure activities to sociability in middle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Yin, J., Katims, D. S., & Zapata, Z. T. (1999). Participation in leisure involvement in delinquency by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2), 170-185.
- Yoon, J. D., Jung, C. K., Yoon, P. K., & Roh, M. R. (2009).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ype on school life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2), 125-134.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pp. 487-560). New York: Wiley.